



공간 제 8062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음력 2월 23일)

신정훈·강기정 “김영록 지지”...결선 판세 뒤집나

신 “전남광주 통합 난제 풀 적임자...광역행정 경험 필요”
강 “행정통합 제안자 가는 길에 힘 실어달라” 지지 합류
분산 표심 재결집 가능성...권리당원·조직 표심 이동 변수

6·3지방선거 D-54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경선 탈락 이후 침묵을 지키던 신정훈 의원과 강기정 시장이 9일 나란히 김영록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막판 표심의 향배를 좌우할 연대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신 의원은 이날 블로그 일문문을 통해 “경선 이후 전남광주 통합과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했다”며 “지지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숙고한 끝에 김영록 후보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례의 배경으로 통합 이후 행정 운영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정치적 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 전남광주가 처한 상황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갑수성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김 후보가 통합 이후 복합적인 과제를 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위기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동부권은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해 있고, 농어촌은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광주는 성장 동력 둔화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광역행정 경험과 협치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문제도 지지 선언의 한 배경으로 언급했다.

그는 민형배 후보를 겨냥해 “여론조작에 가까운 그래프와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한 조직적 개입 등은 당내 경선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인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도 이날 SNS를 통해 김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며 연대 구도를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김영록 후보와 함께 가는 길에 변함없이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전남·광주 통합의 ‘제안자 김영록’, ‘추진자 강기정’, ‘입법자 신정훈’이 함께 뛰며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이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김영록, 신정훈.

강 시장은 향후 정책 연속성과 행정 통합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5·18정신인 헌법 전문 수호를 위한 개헌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며 “AI·모빌리티 실증, 통합돌봄 등 광주에서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 통합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광역도시행정 경험을 가진 광주 공직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과 강 시장의 동시 지지 선언은 결선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신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확보했던 권리당원 기반과 지역 조직력, 강 시장이 갖는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경험이 결합될 경우 단기간에 표심 이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두 인사가 예비경선 이후 단일화를 통해 한 차례 세력 결집을 시도했던 만큼,

이번 연대는 그 연장선에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연대를 단순한 지지 선언을 넘어 ‘통합 운영 구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신호로도 해석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김 후보가 제안자, 강 시장이 추진자, 신 의원이 입법자로 역할을 나누는 구도를 통해 통합 이후 권한 배분과 정책 방향까지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선거 협력을 넘어 통합 명분과 이후 운영 구상까지 공유했다는 점에서 결선 국면의 전략적 결합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연대가 실제 표심 결집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단일화 과정에서 형성된 지지층이 얼마나 결속력을 유지할지, 그리고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따라 최종 판세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분산됐던 표심이 일정 수준 이상 결집할 경우 단기간에 흐름이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영록 후보는 두 인사의 지지 선언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의 미래와 대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세 사람의 연대는 단순한 후보 간 연대가 아니라 전남광주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과 광주가 대통합을 이뤄냈듯이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전남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더 큰 승리를 위한 출발을 시작한다”며 “우리 모두 손잡고 대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결선 투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3조4000억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본궤도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PF 약정...18개 금융기관 참여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1호 프로젝트 사업에 본격적인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39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등 대부분의 기자재에 국산 제품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등 향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3조4000억원은 자기자본

5100억원과 타인자본 2조8900억원으로 조달된다.

타인자본 가운데 2조5000억원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000억원을 포함해 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이 선순우 대출로 공급한다. 나머지 3900억원원은 미래에너지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후순우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 약정 체결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자금 집행이 시작되며, 2029년 초 준공 시점까지 공정률에 맞춰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국내자본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첨단전략산업에 청정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AI로 촉발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생산을 통해 에너지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7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승인 후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처럼, 투자비용 부담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른 분야 혁신 사업에도 국민성장펀드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인천국제공항 직항로 이르면 7월 열린다

15일 공항공사·국토부·항공사들 광주서 간담회
정준호 주최...이 대통령 지적 후속조치 현장결

이르면 7월 광주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로가 열려 무안국제공항 폐쇄 이후 하늘길이 막히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 16개월째 겪고 있는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에 따르면 ‘광주공항-인천국제공항 국내선 유치’를 위한 간담회*가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대한항공·티웨이

항공·제주항공), 광주관광협회, 광주시, 광주관광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로 인한 항공교통 불편 해소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정기항공 편은 물론 여객사 운영에는 국제노선 전체기 운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업계가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졌다. ▶2면서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활기찬 경제 영동호남지
의품호남지

생활 속 숨겨진 위험시설은 내가 신고!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위험해 보이는 시설이 있으신가요?
정부와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해 드립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6. 4. 1. ~ 6. 1.까지 (두달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4.20.~6.19.) 중 점검

신청대상 | 균열, 파손, 침하, 노후등으로 위험해 보이는 생활주변시설
▲ 마을회관 / 경로당 / 복지회관 / 어린이놀이시설 / 전통시장 등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고 꾸욱~

건축 시설
마을회관 노후 건축물 등

복지 시설
요양병원 복지관 등

교통 시설
교량, 농로, 도로 등

기타 시설
산사태위험지역 용벽, 전통시장 등

- ☑ 신청된 시설물은 제외사유 등을 검토하여 점검 대상으로 선정
- ☑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된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
- ☑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이거나, 공사 중 소송·분쟁중인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문의처: 광주광역시 남구청 안전총괄과 (062-607-2954)

☑ 행정안전부
☑ 광주광역시 남구